

칼럼

정문재 뉴시스부국장 겸미래전략부장



과잉 정부

합목적적인 활동은 오래 지속된다. 조직 안팎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몬테 디 피에타(monte di pietà)'다. 우리말로 '이웃사랑펀드'라고 풀이할 수 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1462년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몬테 디 피에타'를 시작했다. 서민들이 물건을 맡기면 시가의 2/3 범위 안에서 급전을 빌려줬다.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전담포 사업에 뛰어들었다. 고금리 대출의 폐해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의 서민들은 고금리 대출로 파탄을 겪었다.

평범한 백성들 입장에서는 '몬테 디 피에타'가 천사 같은 존재였다. '몬테 디 피에타'는 펀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금리를 결정했다.

기부를 통해 대출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리 또는 무이자 대

출이 가능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수요는 폭주했다. 이탈리아는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로 '몬테 디 피에타'가 퍼져나갔다.

스페인어권에서는 '몬테 데 피에다드(monte de piedad)'라고 부른다. 지금은 멕시코의 '몬테 데 피에다드'가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

멕시코의 '몬테 데 피에다드'는 현재 멕시코 전역에서 2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금반지, 시계, 가전제품 등을 담보로 소액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몬테 데 피에다드'의 대출은 자신 행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혜(施惠)일 뿐 복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정치가 개입하면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카마초 멕시코 대통령은 1943년 5월 '어머니의 날'을 맞아 전국의 어머니들에게 선물을 안겨줬다. '몬테 데 피에다드'에 담보로 맡긴 재봉틀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전역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야말로 황제였다. 하지만 효과는 한 달도 가지 못했다. 불과 3주일 만에 모든 재봉틀이 '몬테 데 피에다드'로 돌아왔다.

국가의 존재 이유, 정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민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런 코미디는 언제 어디에서라도 재현된다. 정치인의 속성과 한계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의 상상력 빈곤을 탓하기도 한다. 기차 요금 인하나 공한이용료 면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휴 때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없다.

정부가 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을 일이 있다. 당위성도 없고,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하

지 않는 게 맞다. 더욱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옳다. '큰 정부'에 그치지 않고 '과잉 정부'를 지향한다면 과국은 피할 수 없다.

복지 수요가 나날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큰 정부'는 불가피하다. 전통적인 의미의 '작은 정부'는 19세기 야경국가(夜警國家)에서나 맞는 개념이다.

'큰 정부'는 필요할 지 몰라도 '과잉 정부'는 피해야 한다. 과잉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한다.

기업은 자원 배분에 신중을 기한다. 실패하면 주주와 경영자들이 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다르다. 정치인과 관료는 정책 실패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잉 정부'는 정의도 짓밟는다. 일부 계층에만 특혜를 몰아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으로 편향적 지원이 이뤄진다. 더욱이 이런 특혜는 백지화하기도 힘들다.

정부는 정책의 목적과 효과를 놓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 정책 효과를 과장하려는 유혹도 떨쳐버려야 한다.

밀턴 프리드먼 전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궁금하다면 정책 입안자가 약속하는 것과 정반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비교했다.

社說

어린이 안전 보장해야 한다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학교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횡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 542개 초등 학교의 등·하교 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등교 시 어린이 55.9%가 뛰어가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됐으며 하교 시에는 24.3%가 스마트폰 조작을 하며 횡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하교 시간(낮 12시~오후 4시)에 발생한 서울시 어린이교통 사고는 3322건으로 등교시(오전 8~10시) 774건의 4.3배로 조사됐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40.8%가 발생해 등교 시(오전 8~10시·10.4%)의 3.9배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생활안전연합은 하교 시 안전관리의 경우 등교시 3

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안전지도 증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등교 시 모든 학교는 학교안전보안관과 녹색어머니, 교사, 경찰이 지도를 하는 반면 하교 시에는 학교안전보안관 지도가 전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린이는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22.4%)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최대 위험요인이라고 응답했다. 2순위는 '어린이 스스로 안전 보호를 안한다'(18.5%)가 꼽혔다. 학부모는 1순위가 '어린이들의 위험한 보행'(20.14%)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와 학부모 4명 중 1명은 운전자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험한 이유로 '과속'을 꼽았다.

하교 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지도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최대위험요인으로 꼽히는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운전자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性靜情逸

성품 고요할 뜻 편안할 일

性靜情逸

▷ 뜻: 성품이 고요하면 뜻이 편안하니 고요함은 천성이요, 동작함은 인정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지카 바이러스를 조심하자

전남도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30대 여성이 6월 16일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7일 질병관리본부에서 2차 세부 역학조사

를 실시하고, 여행간 동행자들의 검사 대상물을 채취해 추가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3~7일이 지나 증상이 시작되며 최대 잠복기는 2주이다.

발생국가에 다녀온 이후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이 있다면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임신한 여성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뇌가 성장하지 못하는 소두증에 걸린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소두증에 걸린 아

이는 정신지체 장애가 생기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는 예방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지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생국가에 갈 때에는 긴팔의류와 밝은 색 옷을 착용하며 적절히 모기피해제나 패치 등을 사용해야 한다.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09에 신고하고, 지점에 따라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여행 사실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이 잘 되지 않지만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발생국가에서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귀국 후 남성의 경우 성관계는 최소 2개월 동안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출산 전까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가임여성은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하는 것이 좋다. 조경래 / 여수소방서 화확119구조대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문화응성' (Munhwaungseong) featuring a woman and a child, with text about changing perspectives and social harmony.